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신승남

—
5월호 초상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사를 보며 새삼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활약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론  사람」의 지면을 통해 보니, 앞으로도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은 늘 상존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지도나 중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될 것은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특정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초상권의 범위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사례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매뉴얼을 보다 많이 홍보해 계도해나간다면 권리 침해 문제로 인한 논란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점순

—
〈연예인 보도와 사생활 침해〉를 읽고 공인에 대한 언론사의 알릴 의무가 우선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나를 놓고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엿보게 됩니다. 언론에 연예인의 결혼, 이혼 등 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르내려 도대체 보도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집착해 보도하는지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기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알려진 공인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도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대사회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분간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치명적이며 불가침한 사적 영역은 보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